

서구 사회복지실천 이론의 한국적 적용에 관한 고찰

고미영(서울신학대학교)

I. 서론

서구의 사회복지실천이 한국에 도입되어 사용된 지 반세기가 지났다. 이제는 문화가 전혀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실천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와 반성을 할 때가 왔다. 문화는 언어를 통하여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 특히 경험된 세상을 범주화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Gumperz & Levinson, 1996:1). 또한 문화는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선택의 구조와 원칙들을 부여한다.

서구 사회사업 이론은 서구사회 문화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공통의 방식인 담화 공동체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담화는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며, 몸짓, 쳐다보기, 신체 위치와 의상뿐 아니라 단어, 행동, 가치, 믿음, 태도, 사회적 신분을 통합하는 삶의 방식이다(Gee, 1990:143). 이 담화 공동체는 사람들이 서로를 인식하고 구분해 내는 방식, 이야기의 주제, 또는 서로 상호 작용하는 방식과 같은 특징들을 결정하며 사람들을 그 원칙 아래 구속한다(장복명의 역, 2001:8).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원칙들이 한 문화를 뛰어넘어서 다른 문화의 담화 공동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세세한 항목에 대한 검토보다는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은 근본적인 원리에 주목하여 이 원칙들이 한국과 동아시아 문화에서도 적용 가능한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문화를 구축하는 중심원리로 언어 체계와 그 언어가 조장하는 사고방식들의 관점을 살펴볼 것이다.

II. 두 문화 간의 차이점

1. 언어와 사고의 차이

서구문화의 속성은 그들의 언어 체계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 언어 체계는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재 생산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사고의 형성자이고, 사고 과정에서 개인의 정신적 축적물에 대한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안내자이기 때문이다(Whorf, 1956: 212). Whorf는 상이한 언어가 사람들을 상이한 행동으로 이끄는 이유는 언어가 그들의 인식과 그들의 경험을 범주화시키는 방식을 여과시키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만일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건너갈 때 두 언어가 문화적으로 다른 인식과 경험의 범주를 지니고 있다면 서로 통문화적 이해를 명확히 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

시간에 대한 한 예를 통해 이것을 증명할 수 있다. 서구인의 대표 언어인 영어는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을 객관화된 시간, 명확하게 결합되고 분류 가능하고, 기록하고 시간을 절약하고, 시계 타종하기에 이상적이고 현실을 '이후'와 '때까지'로 분리시킬 수 있는 뉴턴식의 견해로 연결시키지만, 영어는 시간을 순환적이고 단일화된 전체로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장복명의 역, 2001: 16). 동양문화권은 시간에 대해 순환적이고 단일화된 전체로 인식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 시간을 나누어 쪼개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사업 실천에서 개입에 대한 계획을 내담자와 함께 각자의 역할을 조목조목 시간에 따라 정확하게 나누는 것은 서구의 시간 개념과 분석적 사고방식을 따른 것이며 한국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방식이다.

서구인의 사고방식의 특징은 분석적 사고이다. 서구인들은 사태를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 문제점을 여러 요인으로 세밀히 나누어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인이나 일본인은 종합적인 사고 형태를 취한다. 현실세계를 있는 그대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종합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문제를 분석하거나 범주화 하지 않고 여러 요소들을 통일된 전체로 종합하여 전체를 파악하고자 한다(김익환, 1987: 310-11). 현 사회사업실천 이론은 개인이나 가족의 내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를 정의하도록 인도한다. 사정이라는 과정 역시 한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세밀히 나누어 알아내는 과정이다. 인간의 문제자체를 대개 여러 요소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현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Hepworth & Larsen, 1982: 160). 이런 관점에서 Hepworth와 Larsen(1982)은 다차원적 사정(multidimensional assessment)을 추천하였고, Johnson(1995)은 문제해결 사정(problem-solving process), 교류 사정(transactional assessment), 욕구 사정(needs assessment)을 분리해 실시하도록 권한다. 이런 방식에서는 세밀하게 나누어 볼수록 보다 정확하게 사정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분석적 사고가 잘 발달되어 있는 많은 한국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실천하기 어려운 제안이 될 수 있다.

2. 인지 형태의 차이

서구인들의 인지 형태는 대체로 장 독립적(field independent)이고, 귀납적이며 이성을 통한 합리적 방법으로 개인의 성공, 경쟁, 단언적 진술, 보편성 등을 추구한다. 반면에 동양인은 직관적이고, 상황 의존적 인지 형태를 지닌다. 집단의 성공, 단언적으로 말하지 않는 개인의 행동, 협조, 순응, 집단의 이익을 위한 개인의 복종, 권위에의 순종을 중시한다(Kim, 1977). 한국 사회가 집단주의나 가족주의 인지 형태를 지니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집단의 주된 구성원으로 간주하는 사회에서는 개인간의 특수한 관계가 보편적 원리에 우선 할 수 있다.

서구에서 이론은 분리된 사실이나 현상에 대한 설명의 원리로서의 의미를 지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명제를 말한다(장인협외 역, 1986). 이런 보편성 위에 각 상황의 개별적 특성이 가려지는 것이다. 따라서 Johnson(1995:3)은 사회복지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으로 보편적이며 공통적인 인간의 욕구와 인간 발달, 사회체계와 사회적 기능, 인간의 다양성을 꼽았다. 이는 실천가가 어느 상황에서라도 보편화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그것을 기준 삼아 어느 특수한 사례를 이해하도록 인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성은 인간의 평등성을 전제로 추출된다. 특히 집단 안에서의 질서와 계급을 중시해온 사회에서는 보편성을 중시하지 않는다. 보편주의의 원리들은 모든 사람들의 동등함을 강조하고 비권위적인 시민사회 질서 안에서 형성되어 온 인지형태로 동양의 권위적 문화와는 전적으로 충돌한다. 특히 서구문화 안에서 추출된 보편성이 문화를 건너와서 한국이나 타 동양 문화에서도 동일한 보편성을

지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서구이론의 기본 관점들은 사회복지사가 실천상황에서 특정한 요소들에 초점을 맞출 때에도 이 보편주의 원리들을 적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복지사들이 동일한 보편주의 원리를 쓰고자한다면 한국 상황에 맞지 않거나 그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

3. 대인관계 양식

미국과 같은 행동 지향성의 문화는 비형식성, 자연스러움, 엄격한 문체상의 형태에서의 탈피를 강조한다. 미국인들은 의사소통에서 연령, 지위, 성의 차이에 관계없이 비형식적이고, 다채로운 표현을 통해 대인관계에서 평등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유머를 사용하여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신분, 지위, 연령 등의 여러 가지 차이를 느끼지 않도록 한다(김익환, 1987:313). 이에 반해 한국을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집단 안에서 계층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급속히 산업화된 사회로 변화하면서 한국에서도 농경 사회에 토대를 둔 가족-친족이라는 집단 중심의 자연적 인간관계가 이전보다 그 힘을 잃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운명적이고 자연적인 관계를 벗어나 자유롭게 된 사람들도 계약이나 그에 준하는 약속을 통해 만들어진 공동체 속에서 다시 유사 운명적-자연적 관계에 묶인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사실이다. 이 사실은 혈연, 지연, 학연 중심으로 집단을 형성하는 사회 구조에서 드러난다(조대호, 2002: 319). 따라서 이미 산업화된 근대사회에 살면서도 전근대적인 사회적 관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 위계적 질서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유지되어 온다. 한국인의 어휘뿐만 아니라 어법까지도 차이가 나는 경칭어의 여러 단계를 사용하여 이 관계형식을 전수해 오는 것이다. 한국 문화에서는 formality의 역할은 대화자간의 어색함이나 당혹감을 자아내지 않게 하며 오히려 원만하고 부드러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해준다(ibid.).

또 다른 한국인의 인간관계의 특성은 '우리 대 남'의 범주에 대한 구분이다. 대인관계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성' 의식의 형성을 통한 '우리편' 만들기라고 할 수 있다(Choi & Choi, 1994). 한국인의 '우리' 혹은 '우리편'은 일심동체 즉 하나 됨, 서로 알아짐을 의미하는 매우 강렬한 의미를 띤다. 우리는 험한 세상에서 남이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고, 무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의 무조건적 사랑의 결합관계라 할 수 있다. 이 우리를 묶어주는 감정적 줄을 '정'이라고 볼 수 있다(최상진, 김기범, 1999: 5). 한국인에게 이 '정'의 정도는 서로의 관계의 수준이나 질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척도가 된다.

사회복지실천에서 원조관계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지닌다. 원조관계를 전문적 관계라고 정의하고, 이 관계를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사용하라고 권유한다. Biestek(1957)은 케이스워크에서 관계의 7대 기본원칙을 세워 관계론을 정립한 인물이다. 이 원칙의 한 예로 개별화 원칙은 클라이언트가 속한 집단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으로 벗어나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집단은 이 '우리성'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다. 한국인에게 집단이란 서구인이 생각하는 독립된 여러 개개인들의 집합보다 더 깊은 강도를 지닐 수 있다. 한국인들의 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얼마나 우리성-정 관계에서 가까운 사람으로 느껴지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단을 떠나서 한 개인을 이해하기 어렵다. 원조관계도 '우리' 안에 묶여지는 한 방식이며 이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의도적 감정표현(purposive expression of feeling)이나 통제된 정서적 관여(controlled emotional response)와 같이 자연스럽게 않은 감정표현과 감정수위의 조절은 한국인에게 어색하게 느껴진다. 자연스럽게 우리성을 키워가는 친분관계를 선호하는 한국인들은 만나서 곧장 감정적으로 서로 통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자 노력한다. 관계가 진전된다는 것은 이 우리성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런 진전이 없으면 결국 '냉랭한 관계'라 하여 불편하게 느끼게 되며 서로 점차로 소원해 질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인들의 관계성은 상호의존과 집단간의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적 가치로 인해 '우리'라는 울타리를 중요시한다. 미국인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한국인은 감정적이거나 정적인 면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데에서 감정의 교류는 필수적이다. 서로 처음 만난 사람끼리도 '언니' '누님' '형님' 등의 친족 용어로 부르기를 즐기고 거듭 '우리성'을 확인하고 강화하려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내담자와 빠르게 이러한 감정의 고리를 맺을수록 그 관계는 효율적인 관계가 된다. 서구적 의미에서 보면 지나치게 밀착된 관계이며 비전문적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 서구적 의미의 전문적 관계는 따뜻하고 수용적이지만 궁극적으로 중립적이며 공정한 객관성에 근거한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이 주관적이며 '정'이나 '인연'에 이끌리는 것을 선호하는 분위기에서 중립적 관계는 오히려 상처를 주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Biestek이 제안하는 인위적인 감정 수위의 조절이나 감정 표현의 통제들은 한국적 문화와 정서에 맞지 않는 관계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4. 의사소통 방식

개인간의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한국인은 타인의 느낌과 감정을 존중하고 관심을 표명하기 위해 신중한 행동을 한다(김익환, 1987:319). 의사소통에서 상대의 기분, 즉 순간의 느낌이나 분위기를 중시하는 편이다. 일본인은 동정의 표시나 감사의 표현, 격려를 나타내는 표현법이 다양하고 풍부하다. 그러므로 일본인 화자는 자기의 의도나 목적을 정확히 표현하는데 필요한 논리의 구사력이 빈약한 반면 감정적인 복잡한 뉘앙스가 담긴 내용을 표현 하는 데는 뛰어난 기교를 지니고 있다(Okabe, 1983: 31). 따라서 한국인과 일본인은 공통적으로 정확성이나 진실성보다 조화를 추구하는 상황 지향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한국인은 상황을 묵시적으로 이해하거나 적당히 처리해 나가기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함축적이며 모호한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단정적인 발언을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하여 한국인은 '아마', '어쩌면', '혹', '다소', '심중팔구' 등과 같은 한정사를 사용하기 좋아한다. 한국어 구문은 문장에서 주어의 사용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어와 서술어는 문장구조의 주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김익환, 1987: 314). 주어의 생략은 다반사이며 여운을 남기기를 좋아한다. 문체상에 애매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최상급을 이용한 표현보다는 삼가는 말을 쓰거나 주저하기를 더 좋아하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인은 인상적이고 완곡한 논리를 이용하여 완곡한 표현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에 반해 미국인의 의사소통은 정확성과 단언적인 말들을 선호하고 논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나 숫자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려한다. 만일 이와 비슷한 논리를 한국인이 사용한다면 그는 당장 '따지기를 좋아 한다' 라든지 '타산적이다'라고 비난받게 된다. 결국 한국인은 분석적이고 정밀한 의사소통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한국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보다 구체적인 표현을 요구한다든지 내담자의 말을 확인하고 명료화에 힘쓴다면 그는 상대방에게 자칫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다. 특히 직면이나 집중적인 질문은 공격적이라는 인상을 주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공감이나 경청과 지지 등은 내담자의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이다.

Doi(1974: 20)는 미국인들은 초기 유년기부터 대화를 통한 접촉을 추구하는데 반해 일본인들은 비언어적이고 수동적인 의사소통 형태를 발전시킨다고 보았다. 일본인 어머니들은 미국의 어머니들보다 어린

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으며 대화보다는 신체를 통한 접촉을 통해 사랑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이런 의사소통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제약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시작됨을 증명하였다. 이것은 한국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대화보다는 묵시적으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 더 진정한 의사소통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부부관계나 친한 친구 사이에는 서로 심정이 통하면 굳이 조목조목 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가족치료 기법에서 의사소통의 내용과 형식을 바꾸어보려는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는 있을 수 있으나 전적으로 한국인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부부간에 '사랑한다'는 말의 표현이 중요한가 혹은 서로 표현하지 않아도 사랑을 심정으로 느끼며 사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다수의 한국인은 후자를 택할 것이다.

최상진과 김기범은 한국인의 이러한 정서와 의사소통 양식을 '심정 내레이션'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흔히 심정은 '나'라고 하는 자기가 관여된 인간관계 상황에서 상대의 행동이 자신의 기대와 일탈될 때 생겨나는 마음과 마음의 자각, 즉 '자각된 자신의 감정'을 지칭한다(최상진 & 김기범, 1999: 6). 심정 내레이션에는 항상 인간관계, 마음, 행위의 의미, 자신의 신세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심정 내레이션 양식은 일반적 사물의 객관적 기술과 관련된 사리적 사고 양식이나 사리적 내레이션 양식과 현격히 구분되고 대비된다(ibid.,:4). 심정은 반성적 사유를 통해 걸러낸 자기와 관련된 복잡한 감정으로 단순한 감정 기술과는 구별해야 한다. 이 저자들은 한국인에게 '정'과 '우리성'을 바탕으로 한 심정을 주축으로 인간관계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므로 이 심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의사소통이라고 보았다. 치료도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는 것으로 심정 논리와 심정 내러티브 양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정 논리는 '우리끼리'의 논리이고, 사적이고 간주관적(intersubjective)이고, 정(emotion)의 논리이며 마음의 교류를 중요시한다. 반면에 사리논리는 공적 논리이고 이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적 교환이 이루어지고 객관성을 중요시하는 개개인의 상호작용 논리라고 할 수 있다(ibid: 7). 후자는 현대 서구 문화 속에서 발생한 사회복지 이론들이 적극 추천하는 사고방식이며 의사소통의 방식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후자만을 강조하는 교육을 할 때 우리는 중요한 우리 자신의 의사소통 양식을 무시하거나 잃게 되는 모순을 범할 수 있다.

미국인은 청자가 화자의 말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말든 상관없이 청자를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 설득시키려한다. 그러나 한국인이나 일본인은 대화도중에 그가 상대방의 태도, 사고방식, 감정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단 결정하게 되면 더 이상 대화하기를 거부한다(김익환, 1987: 321). 서구 의사소통 이론에서는 어떤 개인의 생각, 느낌, 태도 등의 여러 관점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한국인은 단계적인 과정이나 접근법을 생략하고 직관적인 결론에 도달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화적 선호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현재 우리의 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서구화된 방식의 사고와 의사소통을 지지하는 것이 얼마나 적절한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III. 두 문화의 공통점

사회복지 실천은 언어적 개입과 실천 행동이 다르다.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사와 내담자가 언어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목표를 달성해 가야한다는 점에서 서구나 동양에서의 실천 방식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언어공동체는 어떤 인종이나 민족 혹은 문화나 인구학적 또는 지역적 공동체를 일컫는

용어가 아니다. 그보다 여기서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이 현실에 대한 가정들을 공유하고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영역을 일컫는다. 이 언어적으로 발달된 현실은 매우 미약하지만 사람들을 함께 연합시키기에 충분하다(Pardeck, Murphy, & Choi, 1994: 345).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언어공동체의 형성과 발달은 필수적이다. 언어는 모든 것을 중재하는 중재자로 작용하며 현실을 구성하는 재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ibid.,:343). 가장 손쉽게 내담자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는 내담자가 살아온 모든 삶의 경험을 가장 생생하게 담고 있는 그의 현재 모습이다.

이야기철학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야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유지된다고 본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언어에 의해 모든 세계가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언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의미와 경험이 장구한 세월, 세대와 세대를 거쳐 축적되고 남겨진 것이다(양유성, 2004: 19)

이야기는 인간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나 간략한 형태로 정리해 본다면, 어떤 이야기는 다른 모든 이야기와 공통된 이야기가 있고, 어떤 이야기는 다른 일부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가 있고, 어떤 이야기는 다른 어떤 이야기와도 같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McAdams: 1985: 53) 다시 말하면 인간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고(the universal story), 어떤 문화나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이 아는 이야기가 있고(the cultural story), 또 오직 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나의 고유하고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the individual story). 나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듯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살고 있다. 이야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구성해 주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믿음을 공유하며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데 쓰이는 이야기도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취할 긍정적인 모델과 우리가 버려야 할 부정적인 모델을 준비시켜 주므로 우리의 문화적 가치들을 형성해 나가기도 한다.(Polkinghorne, 1988:14). 우리 모두는 공통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의 영향아래 있고 또 이야기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한 인간의 이야기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힘의 하나는 그가 속한 문화가 전달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살아가는데 특히 우리 민족과 살고 있는 지역의 이야기에 의해 살아가기 때문이다(양유성, 2004: 24).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한국이라는 문화 속에서 우리 자신에 관해 생각하는 내용과 방식에 근본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문화의 이야기는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 아직 개인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부분을 남겨 놓고 있다.

한편 개인의 삶을 볼 때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문화권의 이야기가 소수 주변 이야기들을 압박하거나 잠식해 버리는 경우도 자주 나타난다(Freedman, & Combs, 1996: 32). 흔히 내담자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을 지배하는 이야기는 내담자들의 삶을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이야기이다. 이 많은 지배적 이야기들은 내담자들이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는 사회, 문화, 이웃, 가족을 배경으로 생겨난다. 이 지배적인 이야기는 그러나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고, 다른 이야기로 대체될 수 있다. 새로운 이야기는 계속 발생하며, 사회복지사의 개입은 이 새로운 이야기를 발생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문제를 불러오는 지배적 이야기로부터 내담자를 분리시키고 새로운 이야기로 그들의 삶을 현실화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 사회복지사들의 목표가 될 수 있다.

모든 사회나 문화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서구나 동양이나 그 나름대로의 토양에서 생성된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이는 내담자들의 이야기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늘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이를 실천의 초점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야기를 통한 사회복지 실천 방식에서 두 문화 사이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IV. 결론 및 제언

이질적인 문화는 독특한 지각, 인지, 사고의 틀을 형성하게 하여 각기 고유한 문화적 논리에 일치하는 언어 표현과 관계 양식을 생산한다. 통문화적인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대상언어에 관한 언어지식 만으로는 부족하고 대상언어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 문화적 배경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익환, 1987: 310)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현재 서구 문화의 개인주의는 '나'의식, 자율성, 정서적 독립성, 개인의 주도성,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 보편주의 등에 높은 가치를 둔다. 이에 반해 한국이나 일본의 동양문화권의 집단주의는 '우리'의식, 집단적 정체감과 위계의식, 정적 의사소통, 나눔, 보편주의에 맞서는 특정주의 등에 더 큰 비중을 둔다. 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가 그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적 성향을 결정짓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문화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구성원 개개인의 태도와 신념체계, 정서, 그리고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김규수, 오현숙 2005: 61).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제 우리는 서구의 사회복지실천 이론들을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차용해 온 것을 반성할 때가 왔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언어의 역할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사회복지사들은 언제나 내담자와 그의 가족의 이야기에 가까이 있어왔다(고미영, 2004: 329). 우리가 쓰는 언어는 단순히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은 우리가 쓰는 언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어떻게 말하는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이고자 하느냐에 중대한 결정 변수가 된다(양유성, 2004: 19).

사회복지 실천에서 내담자들과의 만남에서 이 언어의 영향력을 사용하는 것은 어느 문화를 막론하고 모두 동일한 것이다. 특히 각 문화가 형성해 놓은 이야기 안에서 내담자들의 개인적 삶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작업이다.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의 삶에 새로운 영향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내담자의 삶 자체가 바로 이야기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오는 이야기에 의해 바로 우리 자신과 삶을 만들어가고, 이야기의 성숙과 더불어 성장해 가는 삶, 즉 이야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미영, 2004: 23).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우리 문화와 역사, 민족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고,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역사도 이야기를 통해 만들어온다.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이야기를 삶의 모델로서 활용하여 내담자와 가족들의 바람직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 최근에 부상하는 이야기 철학과 치료 이론들의 활용은 통문화적인 실천의 기틀을 마련해준다. 앞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이 이야기를 활용한 실천 방식에 보다 친숙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고미영 2004. 「이야기치료와 이야기의 세계」 청목출판사
 김규수 오현숙 2005. 「가족치료」 양서원
 김익환 1987. 의사소통 형태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 계명대학교 동서문화연구소: 동서문화 19: 309-330.
 양유성 2004. 「이야기치료」 학지사
 장복명, 강혜순, 김정희 (역) 2001. 「언어와 문화」 Claire Kramsch(저) 박이정

- 장인협, 정영순 (역) 1986. 「사회복지방법론」 콤포튼 & 갤러웨이(저) 수문사
- 조대호 2002. 사회적 삶의 형식과 의사소통 해석학 연구 9: 309-329
- 최상진, 김기범 1999. 한국 문화적 심리치료 접근으로서의 심정치료 한국심리학회지:상담과 심리치료 11(2) : 1-17.
- Biestek, F. P. 1957. The casework relationship. Illinois: Loyola Univ. Press.
- Choi, S. C. & Choi, S-H. 1994. We-ness: A Korean discourse of collectivism. In G. Yoon & S. C. Choi(eds.). Psychology of Korean people: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pp. 57-84). Seoul: Dong-A Publishing & Printing Co., Ltd.
- Doi, T. 1974. Some psychological themes in Japanese human relationships. In J. C. Condon and M. Saito(eds.), Intercultural encounters with Japan: Communication contact and conflict. Tokyo: The Simul Press, Inc.
- Freedman, J. & Combs, G. 1996. Narrative therap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Gee, J. 1990. Social linguistics and literature: Ideology in discourse. New York: The Falmer Press
- Gumperz, J. J. & Levinson, S. C. 1996. Introduction: Linguistic relativity re-examined in J. J. Gumperz & S. C. Levinson(eds.): Rethinking linguistic relativit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pworth, D. H. & Larsen, J. A. 1982. Direct social work practice. Homewood IL: The Dorsey Press
- Johnson, L. C. 1995. Social work practice: A generalist approach. Boston: Allyn and Bacon
- Kim, H. 1977. The Korean diaspora. Santa Barbara, CA: ABC-Clio, Inc.
- McAdams, D. P. 1985. Power, intimacy, and the life stories. Homewood, IL:Dorsey Press.
- Okabe, R. 1983. Cultural assumptions of east and west. In W. Gudykunst (e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heo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 Inc.
- Pardeck, J. T., Murphy, J. W. & Choi, J. M. 1994. Some implications of postmodernism for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39(4): 343-346
- Polkinghorne, D. E. 1988. Narrative knowing and the human science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Whorf, B. L. 1956. Language, thought, and reality: Selected writings of Benjamin Lee Whorf. Edited by J. B. Carroll.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Press.

西歐社會福祉實踐理論の韓國的適用に關する考察

Ko, Mi-Young(ソウル神學大學校)

I. 前書き

西歐の社會福祉實踐が韓國に導入して使われてから半世紀が経った.これからは文化が全然違った地域で同じ實踐理論が適用されることができるとどうかに對する検討と反省をする時が來た.文化は言語を通じて私たちが考える方式,特に經驗された世の中を範疇化する方式に影響を及ぼす(Gumperz & Levinson, 1996:1).また文化はその中で住む人々の生に對する選擇の構造と原則を付與する.

西歐社會事業理論は西歐社會文化の要求を満たすために使われる共通の方式である談話共同體を基盤に形成された.談話は世の中に存在する方式で,身振り,眺めること,身體位置と衣裳だけではなく單語,行動,價値,信頼,態度,社會的身分を統合する生の方式だ(Gee, 1990:143).この談話共同體は人々がお互いを認識して區分し出す方式,話の主題,またはお互いに相互作用する方式のような特徴を決めて人々をその原則の下に拘束する(サンボクミョン譯, 2001:8).

この論文ではこのような原則がした文化を飛び越えて他の文化の談話共同體でも適用されることができるとどうかを考察しようとする.したがって詳しい項目に對する検討よりは文化から影響を受けた根本的な原理に注目してこの原理が韓國と東アジア文化でも適用可能なのかを考察しようとする.この論文では文化を軸にする中心原理で言語體系とその言語が助長する考え方の觀點を考察してみようと思う.

II. 二つの文化の間の差

1. 言語と思考の差

西歐文化の屬性は彼らの言語體系に一番よく現われている.言語體系は考えを表現するために再生産する道具だけでなく,それ自體が思考の形成者で,思考過程で個人の精神的蓄積物に對する統合のため

のプログラムで案内者だからだ(Whorf, 1956: 212). Whorfは相異なる言語が人々を相異なっている行動に導く理由は言語が彼らの認識と彼らの経験を範疇化させる方式を渡過させるからだと結論付けた.もしひとつの言語から他の言語に渡るの時二つの言語が文化的に他の認識と経験の範疇を持っていたらお互いに通文化的理解を明確にできないということが自明だ.

時間に對する一例を通じてこれを證明することができる.西歐人の代表言語である英語は英語を言う人々を客観化された時間,明確に結合されて分類可能で,記録して時間を節約して,時計打鐘するのに理想的で現實を'以後'と'時まで'分離させることができるニュートン式の見解で連結させるが,英語は時間を循環的で單一化された全體で認識することは不可能だ(サンボクミョン譯, 2001: 16).東洋文化圏は時間に對して循環的で單一化された全體で認識する方式を使って來た.時間を分けて割ることを不便に思う.したがって社會事業實踐で介入に對する計畫を内談者と一緒に各自の役割を條目別に時間によって正確に分けることは西歐の時間概念と分析的考え方に付いたことで韓國人は易しくない方式だ.

西歐人の考え方の特徴は分析的思考だ.西歐人は事態を適切に理解するために問題點を多くの要因で細密に分けて分析する傾向がある.これとは對照的に韓國人や日本人は総合的な思考形態を取る.現實世界をありのまま全體的な觀點で把握しようと思うという點で総合的だと見られる.彼らは問題を分析するとか範疇化しないで多くの要素を統一された全體に綜合して全體を把握しようとする(ギムイックファン, 1987: 310-11).現社會事業實踐理論は個人や家族の内部を綿密に分析して問題を定義するよう導く.査定という過程も一個人と家族の問題を細密に分けて分かる過程だ.人間の問題自體をたいてい多くの要素と一緒に複合的に一團となっている現象であるからだ(Hepworth & Larsen, 1982: 160).こんな觀點でHepworthとLarsen(1982)は多次元的事情(multidimensional assessment)をお勧めしたし,Johnson(1995)は問題解決査定(problem-solving process),交流査定(transactional assessment),欲求査定(needs assessment)を分離して實施するように勧める.こんな方式では細密に分けて見るほどより正確な査定と見る.したがって分析的思考がよく發達されなかった韓國社會福祉士には實踐しにくい提案になるがちがある.

2. 認知形態の差

西歐人の認知形態は大體章獨立的(field independent)で,歸納的で理性を通じる合理的方法で個人成功,競争,言い切りの陳述,普遍性などを追い求める.一方に東洋人は直觀的で,狀況依存的認知形態を持つ.集團の成功,言い切りに言わない個人の行動,協助,順應,集團の利益のための個人の服従,權威への従順を重視する(Kim, 1977).韓國社會が集團主義と家族主義の形態を持っていることは廣く知られている.このように人々が自分を集團の主な構成員にする社會では個人間の特殊な關係が普遍的原理に優先することができる.

西歐で理論は分離した事實や現象に對する説明の原理としての意味を持った普遍的で一般的な命題を言う(ザンインヒョプの外譯, 1986).こんな普遍性の上に各狀況の個別的特性に分けられるのだ.した

がってJohnson(1995:3)は社會福祉士が一番先に理解しなければならない部分で普遍的で共通的な人間の欲求と人間發達,社會體系と社會的機能,人間の多様性を指折った.これは實踐家がどの状況でも普遍化された人間と社會に對する知識を持ってそれを基準にしてどの特殊な事例を理解するように導く.

しかしこのような普遍性は人間の平等性を前提に抽出される.特に集團中での秩序と階級を重視して來た社會では普遍性を重視しない.普遍主義の原理はすべての人々の同等さを強調して非權威的な市民社會秩序中で形成されて來た認知形態で東洋の權威的文化とは全面的に衝突する.特に西歐文化中で抽出された普遍性が文化を渡ってきて韓國や他の東洋文化でも等しい普遍性を持つと斷定しにくい.したがって西歐理論の基本觀點は社會福祉士が實踐狀況で特定の要素に焦點を合わせる時にもこの普遍主義原理を適用するようにする.しかし韓國社會福祉士が同じ普遍主義原理を使おうとしたら韓國状況にあわないとかその基準を修正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對人關係様式

アメリカのような行動志向性の文化は非公式的,自然さ,嚴格な文體上の形態での脱皮を強調する.アメリカ人は意思疎通で年令,地位,性の差にかかわらず非形式的で,盛りだくさんの表現を通じて對人關係での平等性を維持しようと努力する.ユーモアを使って對人關係で現われる身分,地位,年令などのさまざまな差を感じないようにする(ギムイックファン, 1987:313).その一方韓國を含めた東洋文化圏では集團の中で階層的關係を維持しようと思う.急速に産業化された社會に變化しながら韓國でも農耕社會に土臺を置いた家族-親族という集團中心の自然的人間關係が以前よりその力を失っている.しかし韓國社會で運命的で自然的な關係を脱して自由になった人々でも契約や彼に準ずる約束を通じて作り出した共同體の中でまた類似運命的-自然的關係に縛られるということは非常に珍しい事實だ.この事實は血縁,地縁,學縁中心に集團を形成する社會構造で現われる(チョウデホ, 2002: 319).したがってもう産業化された近代社會に生きながらも前近代的な社會的關係の支配を受けているつもりだ.

この位階秩序は人々が使う言語を通じて維持されて來る.韓國人の言語だけではなく語法までも差がある計傾聴語の多くの段階を使ってこの關係形式を傳授して來るのだ.韓國文化ではformalityの役割は對話者間の曖昧さや當惑感を催さないようにしてむしろ円満で柔らかい意思疎通が成り立つようにしてくれる(ibid.).

また他の韓國人の人間關係の特性は'私たち對他人'の範疇に對する區分だ.對人關係の究極的目標は'私たちの姓'意識の形成を通じる'わがほう作りだ'と言える(Choi & Choi, 1994).韓國人の'私たち'あるいは'わがほう'は同心一體すなわち一つになり,お互いに同じくなることを意味する非常に強烈な意味をたたえる.私たちは險しい世の中で他人や敵から自分を保護してくれて,無賞で助けを取り交わす無條件的愛の結合關係だと言える.この私たちを縛ってくれる感情的結びを情と見られる(チェサンジン,キムギボム, 1999: 5).韓國人にとってこの情の程度はお互いの關係の水準や質を定める一番代表的な尺度になる.

社會福祉實踐で援助關係は非常に重要な比重を持つ。援助關係を専門的關係だと定義して、この關係を意識的で意圖的に使いなさいと勧める。Biestek(1957)はケースワークで關係の七つ基本原則を立てて關係論を定立した人物だ。この原則の一例で個別化原則はクライアントが屬した集團に對する偏見と先入観で脱しなければならぬという原則だ。しかし韓國人に集團はこれ'私たち姓'という概念を土臺で理解しなければならぬ概念だ。韓國人に集團とは西歐人が思う獨立された多くのひとりひとりの集合よりもっと深い概念である。韓國人の關係で重要な點はいくら私たちの姓-情で近い人で感じられるのかというのだ。したがって集團を去って一個人を理解しにくい。援助關係も'私たち'の中に縛られる一つの方式でこれを避けることは易しくないだろう。

意圖的感情表現(purposive expression of feeling)や統制された情緒的關與(controlled emotional response)と同じく自然ではない感情表現と感情守衛の調節は韓國人にはむずかしいと感じられる。自然に私たちの姓を育て行く親しみ關係を好む韓國人は會ってまっすぐに感情的にお互に通じて調和な關係を結ぼうと努力する。關係が進展されるということはこの私たち性がもっと強化されることを意味する。こんなお互いの進展がなければ結局冷ややかな關係だと言って不便を感じるようになって次第によくない關係になるはずだ。

結論的に韓國人の關係性は相互依存と集團間の調和を重視する文化的價値で'私たち'という垣根を重要視する。アメリカ人は對人關係において公平に對することを理想的に思う一方、韓國人は感情的や靜的な面にかたよる傾向がある。社會活動を營むところで感情の交流は必須だ。お互いに初めて會った人も'お姉さん''お兄さん'などの親族用語と呼ぶのを楽しんで繰り返し'私たち姓'を確認して強化しようと思う。したがって社會福祉士が内談者と早くこのような感情の掛けがねを結ぶほどその關係は效率的な關係になる。西歐の意味で見れば密着すぎた關係で非専門的だと思われることもできる。西歐の意味の専門的關係は暖かくて收容的だが窮極的に中立的で公正な客觀性に根據した關係を意味するからだ。韓國人が主觀的で情や縁に導かれることを好む雰囲気の中立的關係はむしろ傷つける逆効果を出すことができる。したがってBiestekが提案する人爲的な感情守衛の調節や感情表現の統制は韓國的文化と情緒に当たらない關係方式だと見られる。

4. 意思疎通方式

個人間の意思疎通において韓國人は他人の感じと感情を尊重して關心を表明するために慎重な行動をする(ギムイックファン, 1987:319)。意思疎通で相手の氣持ち、すなわち瞬間の感じや雰囲気重視する方だ。日本人は同情の表示や感謝の表現、激勵を現わす表現法が多様で豊富だ。だから日本人話者は自分の意圖や目的を正確に表現するのに必要な論理の驅使力が貧弱な一方、感情的な複雑なニュアンスが盛られた内容を表現するにはすぐれた技巧を持っている(Okabe, 1983: 31)。したがって韓國人と日本人は共通的に正確性や眞實性より調和を追い求める状況志向的な意思疎通をする。

韓國人は状況を暗黙的に理解するとか適當に處理して行くのをもっと好む傾向があつて含蓄的で暖

味な言語を使う場合が多い。斷定的な發言を言うという印象を與えないために韓國人は‘多分’、 ‘どうすれば’、 ‘こぶ’、 ‘多少’、 ‘十中八九’などのような限定詞を使うのが好きだ。韓國語は文章で主語の使用が絶對的に要求されるのではないから限定語と述語は文章構造の主な形態だと見られる(ギムイックファン, 1987: 314)。つまり主語の省略は多くて餘韻を残すのが好きだ。文體上に曖昧さが現われるようになることは最上級を利用した表現よりはためらう言葉を使うのがもっと好きだからである。韓國人は印象的で婉曲な論理を利用して婉曲な表現を利用する場合がもっと多い。

これに反してアメリカ人の意思疎通は正確性と言い切りの言葉を好んで論理的に證明された事實や數字を引用して自分の主張を広げようと思う。もしこれに似ている論理を韓國人が使ったら彼はすぐ計算するのが好きだとかせちがらいと非難を浴びるようになる。結局韓國人は分析的で精緻な意思疎通を否定的に受け入れる。

韓國では社會福祉士がより具體的な表現を要求するとか内談者の言葉を確認して明瞭化に力をつくしたら彼は相手にともすれば否定的な印象を残すことができる。特に直面や集中的な質問は攻撃的という印象を與えて相手の氣持をいたむようにすることもできる。一方共感や傾聴と支持などは内談者の好感を催すことができる意思疎通技術だ。

Doi(1974: 20)はアメリカ人は初期幼年期から對話を通じる接觸を追い求めるのに比べて日本人は非言語的で受動的な意思疎通形態を發展させると見た。日本人お母さんはアメリカのお母さんより子供と一緒に過ごす時間をもっと多くて對話よりは身體を通じる接觸を通じて愛を取り交わす。したがってこんな意思疎通行爲に影響を及ぼす文化的制約は非常に早い時期から始まることを證明した。これは韓國人の場合にも同じく見える。對話よりは暗黙的に心と心を通じるのがもっと眞正な意思疎通だと思う傾向があるからだ。夫婦関係や親しい友達の間にはお互いに心情が通じれば敢えて條目別に言うことは不必要だ。したがって家族治療技法で意思疎通の内容と形式を變えて見ようとする努力はある程度の成果はありえるが全面的に韓國人が同意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と思う。夫婦間に愛すると言う言葉の表現が重要なのかあるいはお互いに表現しなくても愛を心情で感じながら暮すことが重要なのかという質問をしたら多數の韓國人は後者を選ぶでしょう。

崔サンジンと金キボムは韓國人のこのような情緒と意思疎通様式を‘心情ナレーション’という言葉で表現した。よく心情は‘私’と言う自分が關與した人間關係の狀況で相手の行動が自分の期待に逸脱される時できる心と心の自覺,すなわち‘自覺された自分の感情’を言う(チェサンジン&キムギボム, 1999: 6)。心情ナレーションにはいつも人間關係,心,行爲の意味,自分の世話などが含まれる。したがって心情ナレーション様式は一般的事物の客觀的技術と係わる事理的思考様式や事理的ナレーション様式と格段に區分される(ibid.,:4)。心情は反省的理由を通じてかけて出した自分と係わった複合した感情で單純な感情技術とは區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著者は韓國人には‘情’と‘私たち姓’を土臺にした心情を主軸で人間關係や意思疎通が成り立つのでこの心情に敏感に應じるのが一番良い意思疎通だと見た。治療も心情を吐露することができる脈絡を提供することで心情論理と心情ナレーティブ様式を活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申し立てる。

心情論理は‘私たち’という論理で、私的で間主觀的(intersubjective)で、情(emotion)の論理で心の交流を重要視する。一方に事理論理は公的論理で理性に土臺を置いているし利害關係によって社會的交換が成り立って客觀性を重要視するひとりひとりの相互作用論理だと言える(ibid: 7)。後者は現代西歐文化の中で發生した社會福祉理論が積極お勧めする考え方で意思疎通の方式だ。このように見る時、私たちが後者のみを強調する教育をする時、私たちは重要な私たちの意思疎通様式を無視するとか失うようになる矛盾を犯すことができる。

アメリカ人は聞く相手が話し手の言葉を全面的に受け入れてもなくても構わずに聞く相手を段階的な過程を通じて説得させようと思う。しかし韓國人や日本人は對話途中に彼が相手の態度、考え方、感情などを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ないと一應決めるようになればこれ以上話し合うのを拒否する(ギムイックファン, 1987: 321)。西歐意思疎通理論ではどんな個人の考え、感じ、態度などの多くの觀點を部分的に理解しなさいと教える。しかし韓國人は段階的な過程や接近法を略して直觀的な結論に到達しようとする。このような文化的選好を考慮しないまま現在私たちの教育が學生にとって西歐化された方式の思考と意思疎通を支持するのがいくら適切かを考える必要がある。

III. 二つの文化の共通點

社會福祉實踐は言語的介入と實踐行動による。社會福祉實踐は社會福祉士と來談者とが言語共同體を形成してその中で目標を果たし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點で西洋と東洋での實踐方式の共通點を見付けることができる。言語共同體はどんな人種や民族あるいは文化や人口學的または地域的共同體を稱する用語ではない。それよりここで共同體はその構成員が現實に對する家庭を共有してこれを正當だと認める領域を稱する。この言語的に發達された現實は非常に微弱だが人々を一緒に連合させるには充分だ(Pardeck, Murphy, & Choi, 1994: 345)。

社會福祉實踐において言語共同體の形成と發達は必須だ。言語はすべてのものを仲裁する仲裁者に作用して現實を構成する材料を提供するからだ(ibid.:343)。一番手軽く内談者の現實を見せてくれることは話だと言える。話は内談者が暮して來たすべての生の經驗を一番鮮やかに盛っている彼の現在姿だ。

話哲學では私たちの生きて行く現實は話を通じて行われて維持されると見る。それは何より先に言語によってすべての世界が現實化されるからだ。言語は私たちが生きて行くすべての意味と經驗が長い時間、世代と世代を通して蓄積されて残されたことだ(ヤンユソン, 2004: 19)

話は人間の歴史と文化の中で多様な姿で現われたが簡略な形態で整理して見たら、どんな話は他のすべての話と共通された話があって、どんな話は他の一部の話と等しい話があって、どんな話は他のどんな話とも同じではない話がある。(McAdams: 1985: 53)言い換えれば人間ならば誰もみんな分かっている話があって(the universal story)、どんな文化や地域に住む人々だけが分かる話があって(the cultural story)、またただ私自分だけが分かっている私の固有して特別な話がある(the individual story)。私を中心に同心円を描くように私たちはこのすべての話らの中で住んでいる。話は個人的な次元で自分の自分

が誰でどこに行っているかを構成してくれる自分の生に対する話があって、文化的な次元ではどんな信頼を共有してどんな価値を傳達するのに使われる話もある。私たちの経験する話は私たちが受け入れるモデルと私たちが捨てなければならない否定的なモデルを準備させてくれるので私たちの文化的価値を形成して行ったりもする。(Polkinghorne, 1988:14).我々は共通的にこのような話の影響の下にあってまた話に影響を與えたりもする。

一人の人間の話形成に大きな影響を及ぼす力の一つは彼の属した文化が傳達する意味だと見られる。何故ならば私たちは話を通じて生きて行くのに特に我が民族と暮している地域の話によって生きて行くからだ(ヤンユジョン, 2004: 24).こんなに見る時私たちは韓国という文化の中で私たちに關して思う内容と方式に根本的な影響を受けているつもりだ。しかし文化の話はすべてのものを決めない。まだ個人によって決まらなければならない部分を残しておいている。

一方個人の生を見る時主導的で支配的な文化圏の話が少数周辺話を壓迫するとか蠶食してしまう場合もよく現われる(Freedman, & Combs, 1996: 32).よく内談者の生において彼らを支配する話は内談者の生を自分らが願わない方向に導いて行く話だ。この多い支配的話は内談者が幼い時代から経験する社會、文化、家族を背景から生まれる。この支配的な話はしかし新しい方向で發展することができるし、他の話で取り替えられることができる。新しい話はずっと發生して、社會福祉士の介入はこの新しい話を發生させる觸媒制になることができる。問題を呼んで來る支配的話から内談者を分離させて新しい話で彼らの生を現實化して行くように助けることが社會福祉士たちの目標になることができる。

すべての社會や文化は話を持っている。したがって西洋や東洋やそれなりの土壤で生成された話が存在してこれは内談者の話中に影響を及ぼしている。社會福祉士は常に内談者の話を聞いているしこれを實踐の焦點にすることができる。こんな點で話を通じる社會福祉實踐方式で二つの文化の間の共通點を捜すことができると見る。

IV. 結論及び提言

異質的な文化は獨特の自覺、認知、事考のフレームを形成するようにしてそれぞれ固有した文化的論理に一致する言語表現と關係様式を生産する。通文化的な意思疎通を成功的にして行くためには對象言語に關する言語知識だけでは不足で對象言語に内包されている社會文化的背景を徹底的に把握するのが非常に重要だと言える(ギムイックファン, 1987: 310)。上でよく見たとおり現在西歐文化の個人主義は'私'意識、自律性、情緒的獨立性、個人の主導性、個人の私生活に對する權利、普遍主義などに高い価値を置く。その反面韓国や日本の東洋文化圏の集團主義は'私たち'意識、集團的正體感と位階意識、靜的意思疎通、分け、普遍主義にもっと大きい比重を置く。一社會の支配的な文化がその社會構成員たちの心理的性向を決定することではないと言っても、文化は社會化過程を通じて構成員ひとりひとりの態度と信念體系、情緒、そして行動様式に影響を及ぼす(キムギユス、オヒョンスク2005: 61)。こんな點を勘案する時もう私たちは西歐の社會福祉實踐理論を文化的差を考慮しないで借用して來たことを反省す

る時が来た。

社會福祉實踐で言語の役割と大切さはいくら強調してもいいと思う。社會福祉士はいつも内談者と彼の家族の話に近くあって来た(ゴミョン, 2004: 329)。私たちの書く言語は單純に私たちの考えと感情を表現する道具ではない。私たちの使う言語は私たちがこの世の中に對して思っている方式に直接影響を及ぼす。また反對に私たちが思っている方式は私たちが書く言語によって影響を受ける。どんなに言うのかは私たちがこの世の中でどんな存在なのかに重大な決定變數になる(ヤンユソン, 2004: 19)。

社會福祉實踐で内談者との出會いでこの言語の影響を使うことはどの文化を問わず同じことだ。特に各文化が形成しておいた話中で内談者の個人的な生の話に注目することは非常に自然な作業だ。話を通じて人々の生に新しい影響力を催すことは内談者の生自體がすぐ話に形成されていると見るためだ。私たちは私たちの生の中に入って来る話によって正しく私たちと生を作って行って、話の成熟といっしょに成長して行く生、すなわちの私的な生を生きて行っている(ゴミョン, 2004: 23)。私たちは私たちが取り囲んだ私たち文化と歴史、民族の話の中で私たち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形成して来たし、また私たちの個人的な歴史も話を通じて作って来る。社會福祉實踐では話を生のモデルとして活用して内談者と家族の望ましい生を追い求めることができる。最近浮び上がる話哲學科治療理論の活用は通文化的な實踐の基礎を用意してくれる。これから社會福祉士がこの話を活用した實踐方式により親み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と願う。

参考文献

- ゴミョン2004. 「話治療と話の世界」 チョングモックツルパンサ
 キムギユス、オヒョンスク2005. 「家族治療」 良書院
 ギムイックファン1987.意思疎通形態に及ぶ文化の影響 啓明大學校東西文化研究所:東西文化19:
 309-330.
 ヤンユソン2004. 「話治療」 ハックジサ
 サンボクミョン,ガングヒェスン,キムジョンヒ(役) 2001. 「言語と文化」 Claire Kramersch(私)朴里程
 ザンインヒョプ,ジョンヤングスン(役) 1986. 「社會福祉方法では」 コムプトン&galloway(私)水門士
 チョウデホ2002.社會的生の形式と意思疎通 解説學研究9: 309-329
 チェサンジン,金期犯1999.韓國文化的心理治療接近としての心情治療韓國心理學會だ:
 相談と心理治療11(2) : 1-17.
 Biestek, F. P. 1957. The casework relationship. Illinois: Loyola Univ. Press.
 Choi, S. C. & Choi, S-H. 1994. We-ness: A Korean discourse of collectivism. In G. Yoon &
 S. C. Choi(eds.). Psychology of Korean people: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pp. 57-84).
 Seoul: Dong-A Publishing & Printing Co., Ltd.

- Doi, T. 1974. Some psychological themes in Japanese human relationships. In J. C. Condon and M. Saito(eds.), *Intercultural encounters with Japan: Communication contact and conflict*. Tokyo: The Simul Press, Inc.
- Freedman, J. & Combs, G. 1996. *Narrative therap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Gee, J. 1990. *Social linguistics and literature: Ideology in discourse*. New York: The Falmer Press
- Gumperz, J. J. & Levinson, S. C. 1996. Introduction: Linguistic relativity re-examined in J. J. Gumperz & S. C. Levinson(eds.): *Rethinking linguistic relativit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pworth, D. H. & Larsen, J. A. 1982. *Direct social work practice*. Homewood IL: The Dorsey Press
- Johnson, L. C. 1995. *Social work practice: A generalist approach*. Boston: Allyn and Bacon
- Kim, H. 1977. *The Korean diaspora*. Santa Barbara, CA: ABC-Clio, Inc.
- McAdams, D. P. 1985. *Power, intimacy, and the life stories*. Homewood, IL:Dorsey Press.
- Okabe, R. 1983. Cultural assumptions of east and west. In W. Gudykunst (e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heo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 Inc.
- Pardeck, J. T., Murphy, J. W. & Choi, J. M. 1994. Some implications of postmodernism for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39(4): 343-346
- Polkinghorne, D. E. 1988. *Narrative knowing and the human science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Whorf, B. L. 1956. *Language, thought, and reality: Selected writings of Benjamin Lee Whorf*. Edited by J. B. Carroll.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Press.